

“가전 소비 공식 바뀐다”… 삼성, AI 구독 2년 만에 1조 ‘눈앞’

블루패스 중심 관리 서비스 강화
신혼·시니어 맞춤 케어 등 세분화
구매부터 설치·AS까지 전 과정 연계
호텔·의료·금융 등 기업시장 공략
B2B 고객 최대 6년 무상 AS 제공

“삼성 AI 구독은 출시 2년 만에 매출 1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스토어 청담에서 열린 ‘삼성 AI 구독 2주년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제품 판매부터 배송·설치, 사용 중 관리와 사후서비스(AS)까지 구독 전 과정을 아우르는 ‘블루패스’를 도입하며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제품 구매 이후에도 전문 엔지니어의 점검과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는 블루패스가 구독 성장세를 이끈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기존 ‘AI 구독클럽’을 ‘삼성 AI 구독’으로 리브랜딩하고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서비스 역량과 삼성전자로자택의 배송·설



(왼쪽부터)김용훈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스토어 청담에서 열린 ‘삼성 AI 구독 2주년 미디어 브리핑’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치 역량, 삼성전자인쇄의 고객 접점을 연계해 제품 선택부터 배송·설치, 사용 중 관리와 AS까지 구독 전 과정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독 이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삼성전

자에 따르면 현재 주요 가전 구매자 3명 중 1명은 삼성 구독을 선택하고 있다. 구독 인지도는 2024년 44%에서 올해 7월 기준 71%로 높아졌고, 향후 가전 구매 시 삼성 제품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75%로 나타났다.

개인 고객 대상 ‘블루패스’는 생애주기에 맞춰 세분화한다. 신혼부부와 1인 가구를 위한 ‘신혼 패스’에는 이사 후 제품 상태를 확인하는 ‘이사 안심점검’, 식기세척기와 로봇청소기 설치·철거 시 가구장을 복원하는 ‘가구 원복’,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시간맞춤 세척’ 등을 담았다. 시니어 대상 ‘이지케어 패스’는 제품 사용 방법과 소모품 교체 시기 등을 전화로 안내하는 ‘안심케어콜’과 맞춤 상담 등을 제공한다.

구독료 부담을 낮춘 ‘방문케어 라이트’도 추가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엔지니어가 관리하고 소모품 교체 등 고객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맡는 방식이다.

구독 대상은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 간 거래(B2B) 삼성 AI 구독’은 공공기관과 호텔·의료·금융 등 기업 고객의 제품 대량 도입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최대 6년 무상 AS 등을 제공한다. 기업 고객 전용 ‘B2B 블루패스’를 통해 ‘시간맞춤 집중케어’, AS 접수 후 영업

일 기준 48시간 이내 방문하는 ‘48시간 긴급 출동’, 사업장별 담당 엔지니어 배정 등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기업 고객이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구독을 활용하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운영비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숙박업소, 의료·금융 분야 등으로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김용훈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B2B 구독 적용 제품에 대해 “은행이나 관공서, 약국, 병원에는 기본적으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이 들어간다”며 “숙박업소나 오피스의 경우 PC와 모니터, 프린터,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기, 에어드레서 등도 구독으로 전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구독을 단기적인 매출 확대 수단에 그치지 않고 제품 구매부터 관리까지 가전 소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AIDC 전력망부터 서버 랙까지’ 아시아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LS전선·LS일렉트릭, 솔루션 공개
버스덕트 생산능력 3배 확대 추진
아세안 투자 확대에 수요 선점 나서

LS전선과 LS일렉트릭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전력 수요 확대에 맞춰 관련 인프라 사업을 강화한다. LS전선은 외부 전력망부터 서버 랙까지 전력을 연결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LS일렉트릭은 송변전부터 배전·운영까지 필요한 전력설비를 묶은 패키지를 앞세워 아시아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과 LS일렉트릭은 오는 29~30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데이터센터 월드 아시아(DCWA) 2026’에 참가한다.

LS전선은 800V 직류(DC)에 최적화된 차세대 데이터센터용 엔드투엔드 전력 솔루션을 선보인다. 외부 전력망인 ‘그레이스페이스’에서 서버가 위치한 ‘화이트스페이스’까지 전력 공급을 연결하는 ‘그리드 투 랙(Grid to Rack)’이 핵심이다.

외부망에서는 기존 초전도 시스템의 AIDC 적용을 추진하고 내부에서는 중전압(MV)부터 서버 랙까지 이어지는 버스웨이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IDC용 전력케이블 생산능력을 기존의 2배로 늘리고 있으며, 버스덕트는 글로벌 빅테크와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조원 규모의 장기공급계약을 확보했다. 올해 말 구미공장 증설과 멕시코 생산법인 완공을 통해 버스덕트 생산능력도 약 3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LS일렉트릭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부터 내부 배전과 운영까지 연결하는 ‘데이터센터 패키지 솔루션’을 선보인다. 전력 공급 설비로 초고압 변압기와 가스 절연개폐장치(GIS), 전력 계통 안정화용 정지형 무효전력보상장치(STATCOM),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월드 아시아 2026’ 부스 조감도. /LS일렉트릭

백업 전원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을 전시한다.

배전 분야에서는 배전반과 배전 변압기를 일체형 모듈로 제작한 모듈형 변전소를 선보인다. 현장 설치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신속한 구축이 필요한 대형 데이터센터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서버 랙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저압 배전반(MDB)과 원격전력패널(RPP), 버스웨이(Busway)도 전시한다.

설비 운영에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DCI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직류 배전 분야에서는 충남 천안 사업장에 구축한 ‘천안 DC 팩토리’의 운영 사례와 데이터를 공개해 실제 적용 경험을 소개한다.

아세안 데이터센터 시장의 누적 투자 규모는 지난 2023년 약 102억달러에서 2030년 305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는 대용량화와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으로 다져온 기술 신뢰도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현지 생산 거점과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고객들의 요구에 맞춘 최적의 전력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chaeheeh@

LG화학, 미래차 경량·친환경 소재 공략

폭스바겐그룹과 소재 개발 MOU
고부가 자동차 소재 경쟁력 강화

LG화학이 폭스바겐그룹과 미래차용 경량·친환경 소재 개발에 나선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재활용 소재의 완성차 적용을 늘리고 고부가 자동차 소재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은 최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폭스바겐그룹과 ‘차세대·친환경 모빌리티 소재 개발 및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LG화학의 고부가합성수지(ABS)와 엔지니어링플라스틱(EP)을 활용해 자동차 경량화와 성능 향상을 위한 차세대 플라스틱·복합소재 개발에 협력한다. ABS와 EP는 충격 강도와 내구성, 가공성이 높아 자동차 내·외장재 등에 쓰인다.

재활용(PCR) 소재와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재를 폭스바겐그룹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내·외장재에 적용하는 방

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양사는 소재별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차세대 모빌리티 소재의 기술 동향과 글로벌 시장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용 고부가·친환경 소재 시장을 확대하려는 LG화학과 지속 가능한 원재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폭스바겐그룹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폭스바겐그룹 경영진은 협약에 앞서 LG화학 오산 CS캠퍼스에서 재활용·전동화·고기능성 소재 솔루션을 살펴봤다. 이어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모빌리티 분야 연구 개발 역량을 확인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민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전무)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소재 기업이 미래 모빌리티 소재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부가·친환경 소재 분야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의 이정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SDI, 첫 LFP ESS로 화재 안전성 입증

UL 대형 화재시험 기준 모두 충족

삼성SDI가 처음으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으로 대형 화재 시험을 통과하며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입증했다.

삼성SDI는 일체형 ESS 솔루션 ‘SBB(삼성 배터리 박스) 2.0’이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 UL 솔루션즈의 대형 화재 시험(LSFT)에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28일 밝혔다. SBB 2.0은 삼성SDI의 첫 LFP 배터리 탑재 ESS 제품으로,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스탠턴티스와의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SBB 2.0 컨테이너에 인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켜 불이 주변

설비로 번지는지 확인했다. 시험 결과 주변 랙으로 화재가 확산하지 않았고 가스 배출이나 폭발, 과열도 발생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자체적으로 꺼졌다.

삼성SDI는 시험 통과 배경으로 각형 배터리의 구조적 특성과 축적된 안전 기술을 꼽았다. 각형 배터리에 적용된 알루미늄 캔은 열과 충격, 압력에 강하며 안전 장치를 추가하기에도 용이하다.

삼성SDI는 지난 7월 UPS(무정전전원 장치)용 배터리로도 대형 화재 시험을 통과했다. 당시 배터리 랙 내부의 모듈을 강제로 전소시킨 시험에서 인접 랙과 시스템으로의 화재 확산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관희 기자

고려아연 지배구조 손질 속도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를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과 미래 성장전략 추진에 속도를 낸다. 특히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추진 중인 핵심광물 사업을 비롯해 이차전지 소재·자원순환·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등 주요 주주들의 협력도 당부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주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정된 3개 안건이 모두 승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백인규 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이형규·서은숙·이준봉·심해섭 독립이사로 새롭게 이사회에 합류했다. 고려아연은 이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독립이사 확대해 이사회 책임성 강화
美 핵심광물 등 미래사업 추진 가속
MBK·영풍에 주요 주주 협력 당부

고려아연은 지배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독립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이사회 역량 매트릭스(Board Skills Matrix)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독립적인 이사회 평가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주요 투자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과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고려아연은 향후 과제가 지배구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체면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성운 기자 ysw@